

Spring 2014 Vol. 66 www.plankorea.or.kr

또 하나의 나, 우리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기구로서 7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받아 온 국제아동후원 단체입니다.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 7천 4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의료보건,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작은 실천, 큰 사랑

실천 하나.
후원금은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기!

실천 둘.
도로명 주소 및
변경된 연락처 등록하기!

CONTENTS

- 04 지구촌을 간다 1
다시 만나자는 약속
- 06 지구촌을 간다 2
나눔을 통한 행복
- 08 우리는 플랜가족
조아라 후원자
- 10 지구촌을 간다 3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세상,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인도네시아
- 12 플랜 활동기
코리아!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 희망을 비추다
- 14 플랜 긴급구호
끝나지 않은 내전,
총성이 울리는 그 안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 16 나눔의 행복
KDB 대우증권
- 18 Plan Board
모든 것을 훔쓸어간 하이엔 그 후
- 20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페루
- 21 Enjoy Plan
- 22 플랜 소식



facebook.com/plan.kr

twitter.com/plankorea

www.plankorea.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후원문의 02.790.5436 | 이메일 kno@plankorea.or.kr
통권 제 66호 | 발행일 2014.3.17
발행인 노영찬 |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다시 만나자는 약속

봉사활동 이후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아이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 버릴 것 같아 쉽사리 하지 못하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수경 흥보대사가 다시 캄보디아를 찾았다.

글_플랜코리아 흥보기획팀 김혜현 / 사진_플랜코리아 흥보기획팀

다시 만나자는 약속

지난 방문을 떠올리며 사니트는 물론 사니트의 친구들과 가족들 선물까지 손수 준비해 온 이수경 흥보대사는 출발부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특별히 이번 방문은 이수경과 함께 5년간 동거 동락한 스텝들과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여름 내내 망가진 도로 때문에 우리는 사니트의 집까지 가지 못하고 근처 마을 회관에서 사니트를 만날 수 있었다.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에 설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니트의 얼굴에는 작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무표정과는 다른 미소와 설렘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년 사이 제법 큰 사니트는 분명하게 우리를 기억했고, 무척이나 밝아진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다. 그저 한번 만나고 돌아간 것 뿐인데 사니트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다. 사니트와 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간식을 만들었다. 제대로 된 재료와 조리기구는 아니었지만 사니트와 친구들에게 꼭 한국 음식을 선보이고 싶었다. 아이들이 꿈을 적은 종이로 바람개비를 접는 사이 김밥과 떡볶이가 완성되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멀리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만들어준 음식이어서 그런지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이 참 고마웠다. 사니트의 친구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간 위생용품을 선물로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친구들의 선물까지 챙겨 자신을 잊지 않고 또 찾아와준 우리에게 사니트는 환한 미소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사니트의 환한 미소가 시원한 바람이 되어 우리 마음에 달았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작년처럼 무겁지가 않았다. 다시 만날 그 날, 더욱 반가울 만남을 기대하니 아이라고 하게도 설레는 이별이 되었다.



여전히 쓰레기를 뒤지는 아이

다음날 우리는 쓰레기 마을에 사는 몸을 만나러 갔다. 1년 전 거대한 쓰레기장에서 몸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코 끝을 찌르던 악취와 쓰레기를 뒤지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몸은 여전히 쓰레기장을 뒤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만난 이후 몸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다. 지난 방문 때 선물해준 자전거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것, 영어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이 좀 더 확실해진 것, 다시 만날 희망으로 하루하루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쓰레기장에서 만났지만 몸의 얼굴은 지난 번 보다 훨씬 밝고 희망차 보였다. 몸의 가족들도 보고 싶어 집을 방문했다.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반긴 몸의 어머니는 눈물로 다시 찾아와 준 고마움을 전했다. 여전히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는 몸을 위해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기로 했다. 몸과 네 가족이 함께 시내로 나와 몸이 먹고 싶어했던 치킨을 먹고 가족사진을 찍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겨우 두 번을 만났지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가족사진을 찍고 나니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끈이 얼마나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당장 1년 후가 아니어도 좋다. 다시 만날 누군가가 있다는 것, 날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1년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나눔을 통한 행복

글·사진 조은호 후원자

4년 전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다녀온 후, 플랜코리아를 통해 파르바티라는 예쁜 딸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겨울, 소중한 인연을 만나러 다시 찾은 네팔은 예전의 그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마찬푸르까지 차로 5시간, 정비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면서 몸은 참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파르바티는 어떤 모습일지, 날 좋아할지 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파르바티의 집 앞에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주었습니다. 꽃다발과 꽃 목걸이 그리고 행운을 축원하는 흰 스카프인 카타(Khata)를 목에 걸어주며 우리를 축복해 주니 황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정도의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는건지... ‘파르바티,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너로 인해 내가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르바티 가족들의 정성이 가득한 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음료와 과자, 전통술 락시 등을 받고 파르바티의 손을 잡고 집을 구경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빨리 흐르고 파르바티의 집을 떠나 인근 학교로 견학을 갔습니다. 고사리 손 가득 아이들이 꽃을 들고 와서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환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눈동자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둘러본 학교의 시설은 열악했고, 가져간 노트 몇 권과 연필을 선물했지만 손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의 환송을 받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플랜에서 펼치고 있는 아동중심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작은 후원금이 이렇게 값지게 쓰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 아동 방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인생에 있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언제 또 오실 수 있을까요?”

“딸 시집갈 때나 와야 할 것 같아요. 전 파르바티의 큰 아빠니까요.”

다시 방문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헤어질 때 살짝 웃던 파르바티의 그 밝은 눈망울 때문에.

방문을 마치고 그 후,

이번 네팔 후원아동 방문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눈물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감동적으로 저를 맞아주는 그들의 마음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작은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더 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어 플랜코리아를 통하여 이번에는 라오스에 있는 아이의 새로운 아빠가 되었습니다.

한 명을 더 후원하기까지 아내와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가 배움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 여자아이를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중간에 후원이 중단되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플랜코리아로부터 예쁜 아이의 사진과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나눔을 통한 행복,
이제는 그 느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3만원의 힘은 위대합니다.**



나마스떼(Namaste)!

파르바티와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후원자님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먼 한국에서부터 후원자님과 지인 분들이 다녀가신 후,

파르바티는 정말 행복해했으며 주신 선물에 매우 감사 드립니다

또 후원자님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 주신 것과,

플랜을 통해 후원자님과 이어진 인연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오시기를 희망하며, 종종 편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수르야 타망 (커뮤니티 자원봉사자)





우 리 는 플 랜 가 족

Plan Family Interview

조아라 후원자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하는 다양한 새해결심,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결심을 한 후원자가 있다. 새로이 9명의 아동을 추가해 총 10명의 아동을 후원하게 된 조아라 후원자님. 실천만 확실한 것이 아니라 나눔에 대한 생각까지 확실한 조아라 후원자님과 만남을 가져보았다.

새해결심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해 아동을 1명씩 추가하는 후원자 분들은 종종 있는데, 매년 1명씩도 아니고 한번에 9명이나 후원을 추가 하시다니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작년 연말 받았던 플랜코리아 소식지에 수입의 3분의 1을 후원하신다는 한 후원자님의 이야기를 읽고 도전을 받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나는 왜 한 명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더라고요. 다른 기관에도 후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후원 방법은 알고 있었어요. 학교를 짓는다던가, 병원을 짓는다던가, 결과가 눈에 확인히 보이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런 단편적인 결과보다 한 아동과 일대일 결연을 맺어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플랜코리아를 통해 후원하게 된 아이가 필리핀에 사는 자스민이에요. 그 작던 아이가 어느새 이만큼 훌쩍 컷어요. 제가 직접 키운건 아니지만 참 기뻐요. 아동결연을 하는 것은 책임감을 갖게 하고 그만큼 보람과 기쁨도 크다고 생각해요.

다른 단체에도 후원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명 아동을 다른 단체를 통해 후원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플랜코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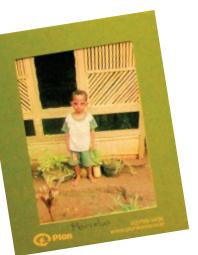
원래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많아서 다른 단체에서 번역봉사나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비종교 단체를 찾다가 플랜코리아를 알게 되었고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철저히 아동 위주로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 하더라고요. 제가 낸 후원금이 온전히 아동에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뢰가 갔고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후원을 하는 아이가 제 도움



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꿈을 갖는 것도 어색해 하더니 이제는 당당하게 꿈을 말하고 어느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놀라운 변화죠. 전 교육이야 말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플랜의 아동중심적인 사업 방식이 참 마음에 들어요.

새롭게 보내드린 아동자료를 잘 찍어서 SNS에 올려주신 것 봤어요. SNS를 통해 주변 분들의 반응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처음 아동자료를 받는 순간이 가장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날은 상당히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결국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후원한 아동 중 라이베리아 아동도 있는데, 라이베리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데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이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나눔에 참여해야 하는지, 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면, 평상시에 나눔이나 후원활동이 자연스럽게 삶에 배어있으신 것 같아요.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네요. 평소 나눔이나 후원을 주변에 많이 이야기하고 권유도 하시나요?

이번에 주변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찔러봤어요. 후원을 새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면 이제는 수락을 하거나 일정 부분은 동참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방문을 할 테니 책 몇 권을 후원해라 내지는 함께 방문해보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이제는 흔쾌히 참여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변화들이 참 좋아요. 물론 저 혼자 해도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욱 의미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후원아동 방문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꼭 많은 친구들을 참여시킬 계획이에요.



안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앞으로 계획이 궁금했는데, 아동방문도 계획 중이시네요? 일년에 한 아동만 방문해도 10년이 걸리네요.

네, 새로 후원을 시작한 아동들이 내년이 되면 1년 정도 되니까 방문해볼 생각이에요. 기관에서 주최해서 단체로 가는 방문 말고 개별 방문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플랜코리아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동방문 하시고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참 많고 읽어보니 도전도 되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다녀와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해보려고 해요. 나라마다 방법과 접근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아동방문이 노하우가 생길 테니 그런 것들을 나눈다거나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독려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눔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요. 이미 나눔이 문화로 자리잡은 외국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나눔에 대해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후원자로서 플랜에게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오히려 플랜이 배울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전 플랜이 참 좋아요. 비종교 단체에 후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게 후원자로서 안타깝고 아쉬워요. 아직은 플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성장하면서 분명히 플랜만의 영역을 만드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원자님들 중에는 멀리 보시고 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후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에 만족을 얻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후원자와 소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나눔의 모습을 큰 형태로 봤을 때 분명히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비록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HYUNDAI·KOICA Dream Center Indonesia



지구촌을 간다 3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세상,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인도네시아”

글_플랜코리아 대외협력팀 최윤성

사진_플랜코리아 홍보기획팀, 해피무브 12기 인도네시아 팀

2014년 1월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이 이 자동차 정비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인도네시아”의 개교식이 열린 것이다.

2013년 가나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두 번째로 개교하게 된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는 5개의 교실, 2개의 소규모 실습실, 교사실, 기숙사가 있는 교육동, 메인 실습실 1개동, 도색 작업을 위한 작업실 1개동으로 구성되어, 이 곳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동차정비 전문 인력을 키울 예정이다.

세계 4위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 하나이다. 15~24세



청소년 인구가 약 3천 8백만 명으로 그 비율이 4번째로 높은 국가로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가 기대되고 있지만, 젊은 계층의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플랜코리아는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은 물론 창업 지원 등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교실 개보수와 실습실 건축 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와 함께 교육 과정을 개정하여 실습에 중점을 두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하였으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지역본부와 협업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완공된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인도네시아”의 개교식에는 드림센터 1기 학생 100여명과 크리스티안토 동자카르타 시장, 박영식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공사 등 양국 정부 관계자, 김후근 현대차 아태지역본부장, 김병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이상주 플랜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현대자동차 글로벌 청년 봉사단 해피무브 12기 80명의 봉사단원들의 문화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다. 해피무브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청년봉사단으로, 이번 해피무브 12기 인도네시아 단원들은 2주동안 드림센터에 부족한 기숙사 건축 및 인근 학교 교실 개보수, 초등학교 교육 봉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여자어린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캠페인 참여 그리고 문화 공연을 펼치며 한국 대학생들의 열정을 인도네시아에 전하고 돌아왔다.

개교식에 참여한 동자카르타 시장은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 현대자동차에 감사의 표를 했고, 현대자동차 지역본부장은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과 협업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키워 나가길 바라며, 드림센터 학생들이 자동차 정비사로 당당히 서는 그 날을 기다려본다.

HYUNDAI·KOICA Dream Center Indonesia





코리아! 코이카! 코리아! 코이카!

플랜 활동기

코리아!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
희망을 비추다**

글 _ 플랜코리아 봉사단원 김수진
사진_KOICA, 플랜 말리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경,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한 말리의 한 시골 마을, 반쿠마나에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이 곳에 지구 반대편 먼 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인데, 바로 대한민국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김영목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KOICA 방문단이 멀고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이 작은 마을까지 찾아와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 반쿠마나 마을에 KOICA의 지원으로 건축된 ECCD (영유아 보호 및 계발, 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센터에 있다.

플랜은 유아의 균형 잡힌 신체,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KOICA와의 협력으로 “말리 칸가바 지역 미취학 아동 교육 지원 및 식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완공된 캐라 및 반쿠마나 마을 내 ECCD센터를 포함한 총 4개의 ECCD 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학습재료 및 기자재 지원, 현지 수혜자 대상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 핸드펌프 우물 설치를 통한 식수 제공, 유아 대상 구충제 지원, 방문 건강 검진 실시 및 영양식 지원 등의 활동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칸가바 지역의 6개 마을 내 아동 및 교사,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개발, 아동발달, 보건위생 환경 개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으며, 반쿠마나 마을의 경우 센터 내에서 3~6세 유아 70명(여아 33명, 남아 37명)이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KOICA 김영목 이사장은 플랜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60km를 달려 반쿠마나 마을을 방문했다. 방문단 차량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길가 양 옆에 서서 질서정연하게 기다리던 아이들과 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코리아, 코이카”를 연달아 외치기 시작했다. 방문단이 차에서 내려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아이들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박수를 치며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KOICA 김영목 이사장은 지역 주민들의 환대와 정성에 크게 감사하며,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반쿠마나 지역 대표의 환영사와 플랜 사업 담당자의 사업 소개가 진행된 후, KOICA 방문단은 마을 내 완공된 ECCD 센터와 우물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센터에는 두 개의 교실과 창고, 화장실, 외부 놀이시설 등 아동 친화적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마침 교실에서는 한창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김영목 이사장은 아이들과 놀이를 함께하고 교사, 지역 대표 등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를 살폈다. 이후 센터 근처에 설치된 우물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이 실제 우물을 이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직접 펌프를 작동해보기도

했다. 현재 이 우물은 ECCD 센터 유아 70명과 인근 지역 주민 950여명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지역 내에 총 6개의 핸드펌프 우물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업장 방문을 마친 뒤에도 김영목 이사장은 아이들과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지역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고 현지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플랜의 사업 방식과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김영목 이사장은 앞으로 말리에 플랜을 통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도 KOICA의 계속적인 지원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와 환영을 표했다. 플랜의 ECCD 센터 지원 사업은 취학 전 유아들의 전인격적 발달을 촉진하고, 영양 및 위생 관리를 지원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심을 환기하고 유아들이 이후 초등교육 과정에도 어려움 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앞으로도 KOICA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더 많은 말리의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아 삶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끝나지 않은 내전, 총성이 울리는 그 안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시작된 정부군과 반군간의 무력충돌로 1만 여명이 사망했으며 71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난민들은 이웃 지역인 우간다, 에티오피아, 수단, 케냐로 대피했다. 최근 전쟁 중 협의된 휴전 협정으로 이 전쟁에 끝이 올 거라는 희망도 있지만, 이미 난민이 되어버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한번에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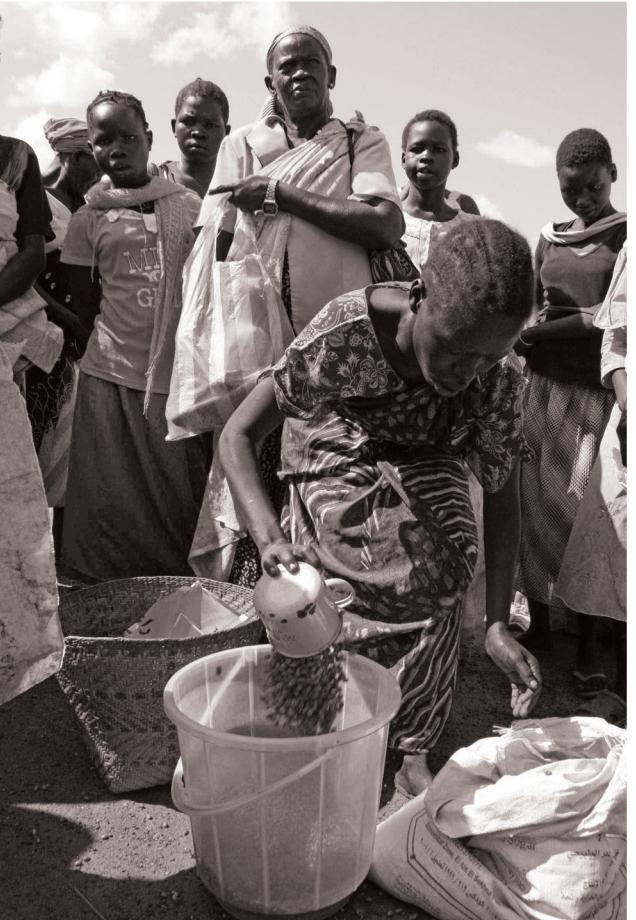
총성 한 가운데의 아이들
“저는 겨우 12살짜리 아이가 총을 들고 있는 것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호하려고 가지고 다닙니다.”

반정부 무장 조직인 수단 인민해방군 (SPLA) 소속 제이콥 (20살)이 어깨에 찬 AK47을 가리키며 말했다.

[남수단 난민 지원하기]

후원전화 ARS 060.700.1170(한 통화 5,000원)

플랜코리아 홈페이지(www.plankorea.or.kr) ▶ 후원하기 ▶ 긴급재해지원 ▶ 남수단 난민 긴급구호
 해피빈 콩 기부하기 ▶ 플랜코리아 해피빈(네이버 해피빈에서 플랜코리아 검색) ▶ 내전의 총성 그 가운데의 아이들



“여러 지역의 난민들은
정말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수백만의 이재민이 남수단 내전을 피해 대피하면서 UN은 소년병들이 징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플랜 수단의 대표 기얀 애드히카리는 “우리는 남수단 내전에 아이들이 소년병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소년병들은 삼중 고를 겪게 됩니다. 첫째, 그들은 평범한 소년기를 보낼 권리와 박탈당합니다. 교육 받을 권리도 포함해서요. 둘째,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셋째, 전쟁 후에도 그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거나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보통의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라며 소년병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소년병 문제와 더불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폭력, 살인, 폭행 등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으며 조흔을 하거나 강요 받는 경우도 많다. 난민 캠프에 전달되는 음식도 여자아이들은 가장 나중에 받을 수 있다.

난민들은 어디로 가는가?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니물레이 지역에 머물고 있다. 니물레이 지역은 현대식 건물과 함께 북적거리는 사람들과 가게 그리고 전통방식으로 지은 집이 공존하는 우간다 국경 근처의 활기찬 작은 마을이었다. 평화로웠던 니물레이에는 이제 분쟁을 피해 몰려온 난민들로 가득하다.

아위리얼 지역에는 이미 많은 난민들이 종글레이 주 보르 지역의 내전을 피해 대피해 있으며, 플랜은 이 곳 수천 명의 난민들에게 음식, 물, 그리고 안전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다. 플랜 동남아프리카 대표 로랜드 앙개라는 “지금 제일 급한 문제는 최소한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여러 지역의 난민들은 정말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식량, 물, 대피소,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고, 아이들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 것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했고, 식수도 얻지 못했으며, 머무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친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플랜은 남수단 비상 대응팀의 구호원들을 둡기 위해 팀을 파견했으며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파트너쉽을 맺어 아위리얼 지역의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식을 공급했다. 더불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위한 아동친화공간을 조성하고 아동 키트를 전달했으며, 긴급히 피난 온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품 및 긴급구호 키트를 지원했다.



KDB대우증권 사회공헌활동 소개

공감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사랑채움 스토리’

하나! 둘! 셋!

KDB대우증권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과 병행하여 플랜코리아와 함께 세이프 스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재해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세이프 스쿨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확보하고 재해재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한 곳이지만,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학교 건물 노후화 및 교육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세이프 스쿨 사업이 진행될 누사 텅가라 티무르주는 2010년 재해기록이 시작된 이후로 140건의 태풍, 96건의 홍수, 56건의 산사태와 32건의 쓰나미가 나타날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재해위험 지역에 있어 재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이에 KDB대우증권은 코이카, 플랜코리아와 함께 세이프 스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5개의 초등학교 개보수 및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난대비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개보수가 완료된 초등학교들을 기반으로 식수시설 마련 및 위생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1970년 회사설립 이후 40여 년간 전직원 참여를 기반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KDB대우증권은 2009년 7월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KDB대우증권은 공감과 참여의 가치를 실천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내 사랑채움]

1)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KDB대우증권은 국내의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요리책 개발을 시작으로 자녀들의 이중언어(한국어와 모국어) 학습교재 개발 및 모국어 경연대회 개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 다문화학교 설립 지원, 외국인 무료병원 후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KBS,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사)지구촌사랑나눔과 함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과 지도교안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다.

2)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사회적기업의 설립기반 조성 및 지속성장을 위해 2011년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팀 성장기금 지원,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도서발간(‘세상고쳐쓰기’, ‘청춘, 착한기업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대상 단기운영자금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잠재사회적기업가 발굴을 위한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사랑채움]

1)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사내 조직인 ‘미경위(미래경영위원회)’의 아프리카 연구로 2011년 DR콩고를 직접 방문하여 농기계를 기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선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KDB대우증권학교를 설립하여 WFP와 함께 급식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 참여 사랑채움]

1) 급여 모금 ‘사랑의 온도계’

사랑의 온도계는 KDB대우증권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사내 모금 인트라넷으로, 90%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전국 지역본부에서 추천한 50여개 단체와 직원 봉사처를 정기 후원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2) 정기봉사 테마봉사

KDB대우증권은 2006년부터 장애인 시설, 호스피스 병원, 양로원 등의 봉사처에서 연 1회 이상 부점별 정기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연탄·김장나누기, 농촌일손돕기, 배식봉사 등 특별한 내용으로 구성된 테마봉사를 병행 운영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든 것을 휩쓸어간 하이옌 그 후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저를 슬프게 해요.”

2013년 11월 7일, 필리핀 전역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은 필리핀 역사상 최악의 상처를 남겼다. 연일 보도되는 언론을 통해 만난 필리핀은 지옥 그 자체였다. 타클로반 지역의 레이테 섬, 세부, 사마르 섬을 초토화시켰고, 44개 주, 229개 도시, 4백만 이재민 발생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남겼다. 하이옌은 지나갔고, 새해가 밝아오며 연일 떠들던 뉴스도 잠잠해지면서 이곳의 아이들은 잊혀져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있고, 태풍 하이옌이 남긴 상처는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플랜은 하이옌 상륙 전부터 지역사회에 긴급구호 물품을 배치해 즉각적인 대응을 실시했다. 이재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긴급구호 식량과 생필품을 지급했으며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과 가족의 임시 거처, 깨끗한 식수, 물 그리고 의료물품을 전달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지역에 아동친화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고 휴식하며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플랜 하이옌 긴급구호 활동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서는 안될 필리핀 아동

동 사마르에 사는 16살 마리넬은 하이옌으로 인해 집도, 친구들도, 꿈도 잃었다

“이곳의 학생들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저를 슬프게 해요. 교육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현재 필리핀에는 180만 명의 어린이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아동들이 폭력, 노동력 착취,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될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오랫동안 높은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플랜은 최근 재난 피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 금액을 7천 5백만 달러로 확대하였고, 이러한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람들은 집 뿐만 아니라 생활터전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재앙으로 인한 구호 활동은 전에 비해 훨씬 대규모가 될 것입니다.” 플랜 필리핀 대표 카린 반 데흐르가 전했다.

향후 플랜은 단기적으로 물과 위생용품 등의 생필품 공급을 비롯해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장기적인 재건 복구사업을 통해 하이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필리핀 하이옌 피해 지원하기]

후원전화 ARS 060.700.1170 (한 통화 5,000원)

후원계좌 (우리은행) 581-187070-13-006 (재)플랜 한국위원회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페루 (Peru)

위치 남아메리카 서부, 남태평양 연안,
칠레와 에콰도르 사이

수도 리마(Lima)

언어 스페인어, 캐주아어, 아이마라어

면적 1,285,216 km²

인구 29,549,517 (2012년)

기후 위도상 열대와 아열대로 구분

종교 로마가톨릭교(81.3%),

복음교회(12.5%),

기타(6.2%)



Enjoy Plan

틀린그림찾기

참여방법

- ✓ 틀린 그림 5개를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 ✓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www.facebook.com/plan.kr)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을 업로드 한다!



페루의 정식명칭은 페루공화국(Republica del Peru)이다. 북쪽으로 에콰도르·콜롬비아, 동쪽으로 브라질, 남동쪽으로 볼리비아, 남쪽으로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마주하고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45%)과 메스티소(37%), 백인(15%)이 인구를 구성하고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뛴다.

광업, 무역업, 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라 국가 전체로는 안정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산악지대나 아마존지대에는 아직도 많은 수의 빈곤층이 남아 있다. 또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매년 각지에서 홍수나 태풍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농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된 수입을 얻기 힘들다.



플랜, 페루에서는?

플랜은 1994년부터 페루에서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300여 개 지역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주요활동

모자보건개선 5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지도, 영양개선, 보육지도를 진행하고 여성들의 건강상태개선, 가정 및 지역 위생개선에 힘쓰고 있다.

교육수준 향상 교사연수, 학교시설 마련 및 재정비, 교재보급 등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계 지원 소득향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가 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난대응 강화 학교나 마을을 대상으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여름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1	아	2	위	3	생	4	트
2	프	리	다	5	기	6	라
3	리			7	지	8	팔
4	온	카	페	9	원	10	가
5	종			11		12	나
6	교			13		14	
7	육			15	C	16	연
8	권			17	H	18	상
9	하			19	I	20	7
10	A	N	D	21	L	O	예
11	N	D		22	V	E	자
12				23			아
13				24			이
14				25			엔

겨울호 이벤트 당첨자

김주형 / 김효주 / 이재린 / 장은영 / 정새란

-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매너티와 함께 아프리카 어린이 돋기

서아프리카 희귀동물 매너티가 플랜코리아 홍보 대사로 위촉된 지 4주년을 맞았다. 매너티는 지난 2009년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관광객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자신의 고향인 아프리카 기니를 비롯해 총 10명의 아프리카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3,543,300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으며, 이 후원금은 아동 후원 및 아프리카 의료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 돋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하며 매너티와 함께 후원금 전달식을 축하했다.



온라인 카페와 함께하는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플랜코리아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온라인 대표 카페들과 함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프로모션을 펼쳤다. 개발도상국 여자 아이들의 조혼 현실에 대해 알리고 조혼을 방지하기 위해 여자아이 결연 캠페인, 네이버 해피빈 저금통 지정 캠페인, 스크랩 이벤트 등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온라인 대표 카페 회원들은 이 프로모션을 통해 나눔을 보다 쉽게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플랜코리아는 생활 속에서 더욱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 및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HSBC은행 여성위원회, 네팔 소외지역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금 전달

HSBC은행 여성위원회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네팔 소외지역의 지역여성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매년 세계 여성의 날마다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HSBC 여성위원회는 라오스 유치원 건립, 태국 여학생 장학금 지원, 라오스 여아들을 위한 식수위생시설 지원 등 플랜코리아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네팔 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혜택과 기본 권리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사업 운영에 관련된 교육과 여성 권리에 관련된 교육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권리와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가계 경제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으로 청춘을 플랜하자! 플랜클럽 8기 발대식

나눔으로 청춘을 플랜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하는 플랜코리아의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 8기가 발대식을 가졌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플랜클럽 8기는 앞으로 지구촌 이슈에 대해 알리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 기념일을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을 펼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플랜의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년 출범한 플랜클럽은 온·오프라인에서 플랜의 캠페인 지원 및 나눔의 즐거움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원외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불어동화책 전달

대원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불어동화책을 플랜코리아에 전달했다. 교과 과목 외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시작한 동화책 만들기 작업은 9개월간 수많은 회의 및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기획부터 스토리, 불어 및 영어 번역, 일러스트, 책 제작비 마련까지 모두 학생들의 힘으로 이루어내 더욱 의미가 있는 동화책은 아프리카 말리의 초등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동화책 전달식에 직접 참석한 학생들은 “상상했던 일이 실현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말리의 어린이들에게 책이 전달된다고 하니 무척 기쁘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Love for Everyone “The Plan” 시즌 3 방영

Love for Everyone “The Plan”이 세 번째 이야기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Love for Everyone “The Plan”은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매년 MBC Everyone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The Plan” 시즌 3에서는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 걸스데이와 오상진의 시선으로 조흔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여자아이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소녀들의 모습, 작은 산골마을에서 FM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의 꿈을 그려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각각 담아낸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찾아간 이수경, 전미선의 이야기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플랜 필리핀, 인신매매의 근절을 외치다

필리핀에서의 인신매매는 아직 주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플랜은 정부와 협력하여 인신매매 문제 해결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하이엔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위기 발생했을 때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인신매매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플랜은 재난 이후 상황에 집중하여 인신매매 근절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2년간 연장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협력하여 인신매매의 근본점과 출구점을 찾아 해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태풍 하이엔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필리핀 국내외 인신매매의 위험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인식 제고 활동을 병행해 태풍 피해지역의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플랜 독일,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단과 자선 파트너십

독일 테니스 연맹은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단을 ‘플랜 팀 도이칠란드’라고 명하며 플랜 독일과 한 걸음 나아간 자선 파트너십을 맺었다.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단은 일년동안 플랜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플랜의 홍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연맹에 속한 선수들이 플랜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랜과 독일 테니스 연맹은 이미 지난 일년간 자선 파트너십을 맺어 ‘Children Need Fans!’ 캠페인을 통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도운바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네팔 카말라리 여아보호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여아들을 노예 노동으로 부터 구출하고 구출된 아이들의 재교육을 돋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여성할례를 멈추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전 세계 1억 2천 5백만 명이 넘는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할례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 중 1억 명이 아프리카에 있다. 국제적, 지역적으로 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관습을 계속되고 있으며 이 추세로는 향후 10년 동안 3천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유니세프는 밝혔다. 플랜 서아프리카 담당자는 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랜은 2015년 6월까지 14세 이하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할례를 10% 감소시키기로 목표를 세우고 할례에 관한 토론의 장을 열어 여성할례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다.



플랜 노르웨이, 자선단체 비용 효율 평가에서 2위 랭크

노르웨이의 경영매거진 케피탈에서 선정한 자선단체 비용 효율 평가에서 플랜 노르웨이가 2위에 랭크 되었다. 케피탈은 매년 모금액 대비 운영비와 홍보비의 사용 비율, 기부금 중 실제 프로그램 비의 사용 비율 등을 조사하여 가장 효율적인 단체를 선정한다. 플랜 노르웨이는 모금액 중 83%를 프로그램 활동비로 지출하여 펜테코스트 교회가 운영하는 재활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용 효율성을 가진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카리타스 노르웨이,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가 그 뒤를 이었다. 플랜 노르웨이의 이사 올라프는 약 84%의 후원자가 정기 후원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며 효율적인 비용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2014 PLAN SHOP NEW ARRIVALS •

Plan Shop



플랜샵에서 준비한 사랑나눔 선물을 소개합니다



핸드 메이드 소이 캔들 - 10% DC

~~32,000~~ 28,800 won

100% 천연 소이 왁스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5가지 향 (버베나, 베이, 클린코튼, 라벤더, 유칼립투스)
냄새 제거, 인테리어 효과,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생일 축하 팝업 카드 7,000 won

후원 아동의 생일 다가오고 있나요?
플랜샵에서 예쁜 생일 카드로 후원 아동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100%
천연소이왁스
별도 선물포장
가능



후원아동에게 보낼 수 있는 선물

스티커세트 / 퍼즐카드

그 밖에도, 후원아동에게 편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작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플랜샵을 방문해 보세요!

구입 및 문의 - **플랜샵**

www.planshop.co.kr / 02.516.5107

